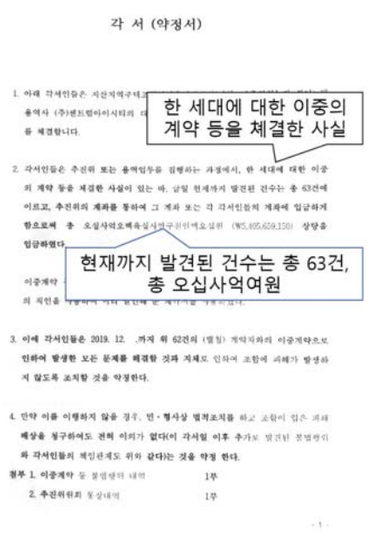
“70억 챙긴 통장 계좌에 달랑 5100원만”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 총회 공동대응 모색
피해 회복 불투명 소식에 울분
“조합측 조치 늦어 피해 키워”

27일 광주시 남구 한 카페에서 열린 지산주택조합 피해자 총회에서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전화를 받지만 않았어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한 자리에 모인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전하는 사례는 대부분 비슷했다.

“마지막 남은 프리미엄층 물량인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니 사모님(사장님)은 복 받으신 겁니다”라는 업무대행사측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지산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커피숍에 모여 ‘피해자 총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자 117명 중 86명이 이날 모였다.

이날 총회는 피해 규모, 현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 공동 대응 방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피해자들은 “(구속된) 업무대행사 대표가 이전 지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합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달라는데 누가 안 믿겠냐”고 반문했다.

피해자들의 탄식도 쏟아졌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70억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계좌에 남은 잔액이 4800원”이라고 발언한 이후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산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계좌와 업무대행사 이사 B씨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추진위 계좌에는 3300원, B씨 개인계좌에는 1800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혹시나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총회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은 “피해액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울먹였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날 총회에서 피해금액의 100%가 아닌, 30~50%를 회복하는 목표를 세워 대응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자들은 또 조합측이 사전 중복 분양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말에 분노했다. 사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비대위는 조합측이 지난해 11월,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사기를 파악했고 12월 말까지 정상화를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각서’〈작은 사진〉를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3명에게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60여건(5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조합이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나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합총회를 통해 공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게 비대위측 입장이다. 조합측이 방관하면서 업무대행사측이 정상화 조치는 커녕, 지난 2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빚어졌다는 게 비대위측 주장이다.

비대위는 또 “조합과 조합 이사들은 사업승인을 위해 이같은 사실을 계속 숨겨왔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조합측에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칫 추가 분담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측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합측과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무자 A씨와 이사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북구 두암동 삼정초 통폐합 또 무산

학부모 투표 60% 이상 반대

3년만에 재추진된 광주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학부모 직접 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표가 60%에 달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북구 두암동 삼정초 학부모 52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학교 통폐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명(37.5%), 반대 29명(60.4%), 무효 1명이었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통폐합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삼정초 통폐합은 2017년 추진됐다가 동문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인 삼정초(학생 65명)를 폐교하고, 삼정초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439명)와 율곡초(352명)에 배치하려고 했다.

또 동문, 학부모, 재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6학년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원할 경우) 학생 재배치나 학교통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도 정했다.

북구청은 삼정초가 폐교되면 그 자리에 총 132억원을 들여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한편 광주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통폐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돌봄이웃 ‘안심동행 앱 서비스’

취약계층 438세대 선풍기
3260세대에 쿨스카프 지원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7월부터 광주시에서 최초로 1인 가구 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북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가 최소 1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요청 알람이 30분 동안 울린 후 미리 입력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긴급구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 오는 30일까지 돌봄이웃 438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하고 지난해 발굴된 고독사 고위험군 1798세대를 비롯해 거동불편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사랑의 식당 이용자 등 총 3260세대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쿨스카프 6520매를 전달한다.

주민,통장, 자활사업단 등 420여 명으로 구성된 인적안전망인 ‘희망지기단’을 운영,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건강상 질환으로 위기에 놓인 돌봄이웃(1564명)의 안부를 살피는‘복지 1촌 맺기’도 펼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모바일 기기의 수·발신 기록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와 집안의 생활환경(움직임, 온도, 조도 등)을 감지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IoT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고독사 우려가 있는 위기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소외계층과 위기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어려움 겪는 학생 400명에 장학금

조선대 청송특별장학사업

조선대학교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매년 조선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Pride CU 청송특별장학사업의 일환이다.

조선대는 이번 청송장학생 기존 선발 기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준을 확대했으며, 전체 장학금액도 기존보다 4000만원 증액된 2억원이 책정됐다.

‘청송장학금1’ 유형은 경제사정 곤란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을 당하여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진 재학생 등에 지원됐다. 학생 200명이 선발됐으며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청송장학생2’ 유형은 코로나19 주거 긴급지원으로써 온라인 수업 기간임에도 대학 주변 원룸 등 임대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타지역 재학생 200명에 50만원씩 지급됐다.

‘청송장학금2’ 유형으로 선발된 3학년 고모(여·23)씨는 “생활비는 없는 상황에서 마침 청송장학생으로 선발돼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교육지표 선언’ 42주년 기념식

오늘 인문대 김남주기념홀

1978년 유신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교육지표 선언’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부활해 5년 만에 열린다.

전남대는 29일 오후 4시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42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살리고 대학의 자긍심과 상징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식을 갖는다. 최근 5년 동안은 학술대회 형식으로 기념식을 대신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전남대 5·18연구소(소장 최정기)와 우리의 교육지표 기념사업회(회장 조봉훈) 주관으로, 최정기 소장의 기념사, 정병석 전남대 총장의 환영사, 최철 민주동우회장의 축사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과 경과보고로 진행된다.

또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78년 당시 참여학생이었던 신일섭 호남대 명예교수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의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당시 참여교수), 김경천 전 국회의원(당시 참여시민) 등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은 42년 전인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 학원 민주화와 민주 교육을 요구했던 사건으로, 선언문이 발표되자 전남대 학생들이 이틀 뒤인 6월 29일 ‘민주학생선언’을 발표하며 지지 시위를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참여 교수 11명은 구속·해직됐고, 30여 명의 학생이 구속·제적·정학 당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재개

통합도서관 홈피서 사전 신청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무기한 연기됐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상록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난 27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토요인문학’과 7월 7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밤의 인문학’ 프로그램 등이 있다.

프로그램들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수강인원 축소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library)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참여 가능하다.

상록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구민의 인문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문학 소양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가자 간 안전거리 확보, 강의실 소독 등의 방역을 기반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수강인원의 50%로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어린이·유아·어르신 등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